

교련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학생 학습요구도 조사

조 은 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유지 증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교육은 국민보건 향상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김, 1989; 서, 1989; Balog, 1981; Rash; 1979)

학교에서의 건강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Rash(1979)는 학교건강교육을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건강봉사(health service), 건강한 학교환경(healthful living condition)으로 구분하였고, 다시 건강교육을 건강교육 교과목에 의한 내용과 기타 관련과목에 의한 내용으로 분류하면서, 건강교육교과목 강의의 기여도가 유치원에서는 10%이다가 고등학교에서는 50%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교육현실은 대학입학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입시위주교육으로

건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정규교육 체제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체육교과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있고, 학교 건강사업 역시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제의 틀속에서 전염병 관리 위주의 사업으로 출발하여 신체 검사에 치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김, 1989)

하지만 Rash의 연구결과에서처럼 고등학교과정에서의 건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도 1984년 문교부 고시로 현재 체육시간중 25%에 해당하는 시간을 건강교육에 할당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학교보건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양호교사가 1주에 6시간의 건강교육을 정규수업시간에 실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획대로 건강교육관련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유, 1989). 그 주요 이유는 관련교사의 건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배, 1989; 오, 1991) 교육여건상의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방, 1989; 추, 1992).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건강사업은 양호교사가 맡고 있지만 학교건강교육은 교련(여)교사, 체육교사, 생물교사, 가정교사가 부분적(황, 1986)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

* 세종고등학교 교련교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이며, 그 중에서도 교련교과목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 관한 체계적 학습요구도 파악이 없었으므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수업 내용은 단편적인 건강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쳐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계발시키는 데는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남 등, 1989; 김, 1988).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교육이 정규교과목으로 설정되어야 함은 물론, 이 교육을 전담할 전문교사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대두되어왔다(Edward, 1987; Rosner, 1977; Kalisch, 1983).

건강교과가 독립교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건강교과목 전반에 관한 문제해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김, 1992)이며, 그 내용도 지식 위주가 아닌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교육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김 등, 1989). 그러나 실제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현행의 교과목도 통폐합시켜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새로운 교과목의 설정은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1996년부터 적용하게 될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건강의 중요성을 첫번째로 강조하였다. 또 교련교과목의 교육내용에서 기초군사훈련 내용을 삭제하고 실제생활에서 활용가능한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남, 여 공히 다룰 수 있는 안전, 위생 및 간호영역을 설정하여 1994년부터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1993).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고등학교에서의 건강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련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효과적인 건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교련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 관

련내용이 학생들의 학습요구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학습요구에 맞는 건강관련 교육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학습요구도를 측정한다.
- 2) 학년별, 성별, 계열별 학습요구도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교련교육과정 :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고시된 교련교육과정과 1994년 3월 1일 신입생에게 적용할 신교육과정에 고시된 교련교육과정을 말한다.

건강관련내용 : 교련교육과정중에(현행교육과정, 신교육과정)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고와 재난,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붕대법, 운반법 및 관리, 정신위생, 식품위생, 전염병, 성인병, 환경위생, 인간과 성, 기본 간호, 공중보건 등 12개 영역이다.

학습요구도 : 교련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배우기를 필요로 하는 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 학습요구도 설문지에 의해 측정된 것을 말한다.

II. 문헌고찰

1. 교련교과의 설립 배경 및 성격

교련교과는 1970년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 방침과 올진,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북한의 붉은청년근위대 조직설 등 긴박한 국내외 정세에 대비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실시해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다(한겨레 신문, 1993).

이렇게 국토방위를 담당하게 될 예비적 자원으로서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가수호와 국가발

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정신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굳은 의지를 길러 조국 발전의 역군으로 매진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정신교육을 통하여 애국 애족의 정신과 불요불굴의 기상을 기르고 군사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숙달시켜 자주국방의 의지와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었다(문교부, 1990)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89년부터 대학에서는 이미 교련 및 군사훈련이 완전 폐지되었으며,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교사들은 교련이라는 교과명칭과 과목의 성격과 지도내용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한겨레 신문, 1993).

이에 교육부는 1996년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1994년부터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 교육과정에서 의한 교련교과의 성격을 개인, 집단 및 국가 차원의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바꾸었다(동아일보, 1993).

2. 교련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작업은 교수요목기(1945-1953)를 거쳐 1953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 이루어져 왔고, 1970년부터 시작한 교련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시간배당 등이 남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서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이 시대 상황에 맞도록 변화 조정되어 왔다.

1970년부터의 교육목표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단체훈련을 통하여 협동심과 단결심을 배양시킨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그러나 1984년에 개정된 교육목표는 “국민보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건강한 국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와 “응급 처치와 간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건강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건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가지게 하며, 바람직한 건강 행동의 습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국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이 강화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다시 군사기능 영역이 강화되어 “국가방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기르고, 올바른 국가관과 자유민주적 생활태도 확립 및 국가방위 임무와 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로 그 목표설정에 건강관련내용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4년부터 새로 적용될 신교련교육과정은 24년동안 실시해온 군사훈련단원이 삭제되고 학습목표도 “안전과 위생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중 3년동안에 12단위(주당 2시간)를 이수했으나 신교육과정에서는 6단위(주당 1시간)로 바뀌게 되었다.

3. 교련 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내용

교련 교육과정의 변화는 건강관련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련 교과목이 시작된 1970년에는 응급처치 30% 붕대법 15% 간호법 50%로 총 95%의 높은 구성비로 건강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4년 개정시에는 응급처치 38% 환자간호 3.6% 공중보건 5.6%로 총 47.2%, 1984년 개정에서는 응급처치 33.3% 공중보건 9.8% 기초간호 9.8%로 약 53%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현행 교련 교육과정에서는 기초간호 12.7% 응급처치 20.6% 공중보건 13.7% 생존 3.9%로 약 51%를 차지하고, 신교육과정에서는 사고와 재난 19.4% 응급처치 13% 위생 및 간호 19.4%로 약 52%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1984)과 김(1976)의 선행연구결과에서는 교련 교육과정내 건강관련내용의 구성비율이 각각 50.3%와 45.6%로 보고되었고, 이들은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건강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교과목이 교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1986)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한 교련 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 내용은 현행 교육과정과 1994년부터 시행될 신교련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내용으로 한다.

이 두 내용을 비교해 보면, 즉 공중보건의 개요, 환경위생, 생존이 삭제되고 사고와 재난, 인간과 성 영역이 새로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행의 교련 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 단원은 '기본간호'에 간호의 개요, 환자의 환경, 환자의 기본간호, 투약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급처치'단원에는 개요, 각종응급처치, 붕대법, 골절에 대한 처치, 환자운반법, 대량부상자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 '공중보건'단원에는 개요, 전염병, 성인병, 환경위생, 식품위생, 정신건강 등이 '생존'단원에는 개요, 생존의지, 피복, 식량, 성화, 은신처, 건강관리 등의 건강관련 내용이 있다.

1994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신교육과정에는 '응급처치' '위생 및 간호'와 새로이 설정된 '사고와 재난'등 3단원이 있다. '응급처치' 단원에는 응급처치원칙, 종류와 방법, 붕대법, 환자운반법 및 관리 등으로 현행 교육과정과 별 차이가 없다.

'위생 및 간호'단원에는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공중보건'단원에서 다루던 정신위생, 식품위생, 전염병, 성인병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또한 현행 교육과정중 '기본간호'단원이 신교육과정에서는 '위생 및 간호'에 포함되었고 '인간과 성'에 대한 내용이 새로 설정되었다. 신교육과정에 새롭게 설정된 단원 '사고와 재난'에는 교통, 화재, 폭발물, 유해물질, 산업재해, 천재지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체고등학교 학생이나 1993년 현재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

즉, 실업계 남자고등학교,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의 4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1개교씩 선정하였

다. 이들중 1, 2, 3학년에서 각각 1개 학급씩을 선정하여 모두 12학급 594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현행 교련교육과정과 1994년부터 시행될 신교육과정에서 건강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12개 영역, 55개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측정하였다. 그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과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학습요구도 파악을 위하여 세분한 '사고와 재난' 7문항, '응급처치' 12문항, '붕대법' 3문항, '운반법 및 관리' 3문항, '정신위생' 4문항, '식품위생' 2문항, '전염병' 4문항, '성인병' 3문항, '환경위생' 4문항, '인간과 성' 6문항, '기본간호' 4문항, '공중보건' 3문항 등 총 55문항이다.

사전조사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0.735였고 학습요구도는 리커트식(Likert-type) 5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 즉 배울 필요가 많으면5에
- 배울 필요가 대체로 많다면4에
- 그저 그렇다면3에
- 배울 필요가 대체로 적다면2에
- 배울 필요가 없다면1에 0표를 하도록 하였다.

교련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요구도는 평균치가 4.0이상은 '아주 높다', 3.0이상 4.0 미만은 '높다', 2.0이상 3.0미만은 '그저 그렇다'로 기준을 설정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기타란을 두어 각 영역에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적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1993년 3월 15일부터 3월 27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담임교사 참석하에 즉석에서 기입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600부를 나누어 주고 594매를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 카드에 기호화한 다음 사회과학통계집(SPSS)을 활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자료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② 대상자의 교련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학생 학습요구도는 12영역 55문항으로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③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학생 학습요구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 ① 이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부 고등학교에 국한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시키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② 이 연구에 사용한 교련 교과목 교과서는 여사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594명의 학년 분포는 1학년 196명(33%), 2학년 202명(34%), 3학년 196명(33%)으로 고른 분포였다. 성별분포는 여학생 302명(50.8%) 남학생 292명(49.2%)이었고 계열분포는 인문계 294명(49.5%), 실업계 300명(50.5%)으로 나타났다.

주관식 평가에 의한 학교성적은 중위그룹이 361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 141명(23.7%) 하위 90명(15.2%) 무응답 2명(0.3%)이었다.

생활수준은 중상 310명(52.2%), 중하 246명(41.4%)으로 모두 556명(93.6%)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중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상 16명(2.7%) 하 20명(3.4%) 무응답 2명(0.3%)도 있었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255명(42.9%), 건강하다 214명(36%), 나쁘다 63명(10.6%), 매우 건강하다 58명(9.8%), 매우 나쁜 편이다 4명(0.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정도에 관하여 때때로 걱정한다가 339명(57.1%)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고,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가 165명(27.8%)이었으며, 자주 걱정한다가 90명(15.1%)이었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련 교과서내에 포함된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꼭 배울 필요가 있다, 114명(19.2%)와 대체로 배울 필요가 있다에 267명(44.9%)로 381명(64.1%)의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저 그렇다 162명(27.3%)의 반응도 있었으며 대체로 배울 필요가 없다 30명(5.1%), 배울 필요가 없다 21명(3.5%)의 부정적인 응답도 51명(8.6%)이 있었다.

한편 단독과목 설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건강관련과목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300명(50.5%), 현상태가 좋다 134명(22.6%), 모르겠다 126명(21.2%), 불필요하다 33명(5.6%), 무응답도 1명(0.2%)이 있었다.

<표 1 참조>

2.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영역별 학습요구도와 문항별 학습요구도

전체 학습요구도의 평균점수(3.91)는 비교적 높았다. 12개의 건강영역 중 학습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인간과 성'(4.25)이었고 그 다음은 '식품위생'(4.22) '성인병'(4.10)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4.08) '봉대법'(3.97) '전염병'(3.94) '환경위생'(3.85) '정신위생'(3.80) '공중보건'(3.75) '기본간호'(3.73) '운반법 및 관리'(3.68) 등의 순이었으며 '사고와 재난'(3.57)이 가장 낮았다.<표 2 참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 수(명)	백분율(%)
학 년	1 학년	196	33
	2 학년	202	34
	3 학년	196	33
성 별	여학생	302	50.8
	남학생	292	49.2
계 열	인문계	294	49.5
	실업계	300	50.5
성적 (주관적)	상	141	23.7
	중	361	60.8
	하	90	15.2
	무응답	2	0.3
생활수준 (주관적)	상	16	2.7
	중 상	310	52.2
	중 하	246	41.4
	하	20	3.4
	무응답	2	0.3
건강상태 (주관적)	매우 건강하다	58	9.8
	건강하다	214	36
	보통이다	255	42.9
	나쁜 편이다	63	10.6
	매우 나쁜 편이다	4	0.7
건강을 걱정하는 정도 (주관적)	자주 걱정한다	90	15.1
	때때로 걱정한다	339	57.1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165	27.8
교련교과서에 포함된 건 강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꼭 배울 필요가 있다	114	19.2
	대체로 배울 필요가 있다	267	44.9
	그저 그렇다	162	27.3
	대체로 배울 필요가 없다	30	5.1
	배울 필요가 없다	21	3.5
단독과목 설정에 대한 의견	현 상태가 좋다	134	22.6
	건강 과목을 설정하여 체계적 으로 배우고 싶다	300	50.5
	모르겠다	126	21.1
	불필요하다	33	5.6
	무응답	1	0.2
계		594	100.0

〈표 2〉 건강영역별 학습요구도 N=594

건강영역	평균	표준편차	순위
사고와 재난	3.57	0.69	12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4.08	0.64	4
붕대법	3.97	0.94	5
운반법 및 관리	3.68	0.82	11
정신위생	3.80	0.88	8
식품위생	4.22	0.81	2
전염병	3.94	0.72	6
성인병	4.10	0.77	3
환경위생	3.85	0.81	7
인간과 성	4.25	0.70	1
기본간호	3.73	0.81	10
공중보건	3.75	0.86	9

각 문항별 학습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인공 호흡 및 심폐소생’(4.57) 이었고 그 다음은 ‘성인병 예방대책’(4.55) ‘성과 성윤리’(4.54) ‘남여의 생리와 위생’(4.51) ‘전염병 예방’(4.50)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학습요구도가 낮은 것은 ‘천재지변’(2.95) ‘대량부상자관리’(3.30) ‘간호의 개요’(3.33) ‘폭발물’(3.33) ‘산업재해’(3.35) 등이었다.〈표 3 참조〉

3. 학년별, 성별, 계열별 학습요구도

1) 학년별 학습요구도

학년별 학습요구도는 1학년(3.92)이 가장 높고 3학년(3.909) 2학년(3.90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3〉 문항별 학습요구도

건강영역	영역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사고와 재난	교통	4.09	1.04	17
	화재	4.08	0.98	19
	폭발물	3.33	1.24	52
	유해물질	3.86	1.07	32
	산업재해	3.35	1.12	51
	천재지변	2.95	1.24	55
	대량부상자관리	3.30	1.26	54
응급처치의 원칙	응급처치의 원칙	4.14	1.00	10
응급처치의 원칙과 종류와 방법	창상	3.87	1.00	31
	출혈	4.49	0.79	6
	충격	4.01	0.94	23
	질식	4.20	0.99	12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	4.57	0.81	1
	의식불명	4.10	1.03	16
	교상	3.66	1.07	44
	화상 및 동상	4.13	1.01	15
	중독	4.05	1.02	22
	이물제거	3.68	1.16	42
	골절	3.95	1.10	27
붕대법	삼각건 붕대법	3.81	1.11	36
	감은 붕대법	3.92	1.09	29
	신체부위별 손상에 따른 붕대사용법	4.18	1.02	13
운반법	맨손운반법	4.01	1.05	24
	들것운반법	3.68	1.01	43
	엠브란스 및 차량 운반법	3.36	1.19	50

건강영역	영역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정신위생	정신건강의 정의	3.69	1.13	41
	육구	3.78	1.08	38
	인격발달	3.90	1.07	30
	적응	3.84	1.12	34
식품위생	음식물과 관련된 질병	4.37	0.83	7
	식품관리	4.07	0.95	20
전염병	전염병의 종류	3.80	0.99	37
	생성과정	3.63	1.08	45
	예방	4.50	0.78	5
	예방법규	3.85	1.08	33
성인병	공통적인 특징	3.93	1.03	28
	성인병의 종류	3.83	1.02	35
	예방대책	4.54	0.82	2
환경위생	기후와 건강	3.71	1.01	40
	급수위생	3.98	0.98	25
	의복과 주거	3.63	1.06	46
	환경오염	4.09	0.99	18
인간과 성	남여의 생리와 위생	4.51	0.77	4
	성과 성윤리	4.54	0.79	3
	인구와 가족계획	3.75	1.09	39
	결혼생활	4.20	1.02	11
	임신과 분만	4.32	1.01	9
	육아	4.16	1.09	14
기본간호	간호의 개요	3.33	1.06	53
	환자환경	3.58	1.06	47
	환자의 기본간호	4.05	1.00	21
	투약법	3.97	1.04	26
공중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	3.39	1.11	49
	건강의 개념	3.51	1.14	48
	건강관리	4.36	0.95	8

1학년은 '인간과 성'(4.18)이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4.17) '붕대법'(4.12) '성인병'(4.07)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4.04) '전염병'(3.96) '환경위생'(3.88) '공중보건'(3.81) '기본간호'(3.79) '정신위생'(3.78) '운반법 및 관리'(3.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사고와 재난'(3.56)이었다.

2학년은 '식품위생'이 (4.218) 가장 높았고 '인간과 성'(4.211)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4.14) '성인병'(4.07) '붕대법'(4.02) '전염병'

(3.94) '환경위생'(3.88) '기본간호'(3.73) '공중보건'(3.72) '정신위생'(3.69) '운반법 및 관리'(3.65)의 순으로 높았으며, '사고와 재난'(3.60)영역이 가장 낮았다.

3학년은 '인간과 성'(4.3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식품위생'(4.28) '성인병'(4.18)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4.05) '정신위생'(3.94) '전염병'(3.94) '환경위생'(3.78) '붕대법'(3.78) '공중보건'(3.73) '기본간호'(3.67) '운반법 및 관리'(3.65)의 순으로 높았고 '사고와 재난'

(3.54)이 가장 낮았다.

영역별 항목에 대한 학년별 집단비교는 ‘붕대법’(F=6.43) ‘정신위생’(F=4.16) ‘인간과 성’(F=3.37)에서 학년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5$)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난 영역은 ‘전염병’이고 ‘사고와 재난’ ‘환경위생’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작았다.

<표 4> 학년별 학습 요구도

건강영역	학년별						d.f	F	p
	1학년	순 위	2학년	순 위	3학년	순 위			
사고와 재난	3.56	12	3.60	12	3.54	12	2	0.38	0.68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4.04	5	4.14	3	4.05	4	2	1.45	0.23
붕대법	4.11	3	4.02	5	3.78	8	2	6.43	0.00
운반법 및 관리	3.74	11	3.65	11	3.65	11	2	6.43	0.00
정신위생	3.78	10	3.69	10	3.94	5	2	416	0.02
식품위생	4.17	2	4.22	1	4.28	2	2	0.88	0.42
전염병	3.96	6	3.94	6	3.94	6	2	0.05	0.95
성인병	4.07	4	4.07	4	4.18	3	2	1.28	0.28
환경 위생	.88	7	3.88	7	3.80	7	2	0.66	0.52
인간과 성	4.18	1	4.21	2	4.35	1	2	3.37	0.04
기본 간호	3.79	9	3.73	8	3.67	10	2	1.04	0.35
공중 보건	3.81	8	3.72	9	3.73	9	2	0.71	0.49

2) 성별 학습요구도

여학생의 평균학습요구도(3.99)는 남학생(3.84)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여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식품위생’(4.43)이고 그 다음으로 ‘인간과 성’(4.28) ‘성인병’(4.05)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4.13) ‘전염병’(4.05) ‘붕대법’(3.97) ‘환경위생’(3.97) ‘기본간호’(3.88) ‘정신위생’(3.85) ‘공중보건’(3.83) ‘운반법 및 관리’(3.66)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사고와 재난’(3.49)이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간과 성’(4.21)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인병’(4.06)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4.03) ‘식품위생’(4.01) ‘붕대법’(3.97) ‘전염병’(3.83) ‘정신위생’(3.76) ‘환경위생’(3.73) ‘운반법 및 관리’(3.71) ‘공중보건’(3.67) ‘기본간호’(3.57) 순이었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사고와 재난’(3.49)이었다.

성별에 따른 영역별 학습요구도의 차는 ‘식품위생’($t=6.38$) ‘기본간호’($t=4.77$) ‘전염병’($t=3.79$) ‘환경위생’($t=3.56$) ‘사고와 재난’($t=2.57$) ‘공중보건’($t=2.22$)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p < 0.05$)

성별 차이가 가장 작은 영역은 ‘붕대법’($t=0.95$)이었다.

3) 계열별 학습요구도

인문계학생들의 평균학습요구도는 3.92이고 실업계 학생들의 평균 학습요구도는 3.90이었다.<표 6 참조>

인문계 학생들의 학습요구도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인간과 성’(4.24)이고 다음으로는 ‘식품위생’(4.20)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4.17) ‘성인병’(4.05) ‘붕대법’(3.98) ‘전염병’(3.88) ‘환경위생’(3.87) ‘정신위생’(3.84) ‘운반법 및 관리’(3.80) ‘기본간호’(3.73) ‘공중보건’(3.67) 순이

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사고와 재난'(3.66)이었다. 실업계 학생들이 학습요구도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역시 '인간과 성'(4.25)이었고 다음으로 '식품위생'(4.24) '성인병'(4.16) '전염병'(4.00)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3.99) '붕대법'(3.96) '환경위생'(3.84) '공중보건'(3.84) '정신위생'(3.77) '기본간호'(3.73) '운반법 및 관리'(3.57)의 순이었으며 '사고와 재난'(3.46)이

가장 낮았다. 계열별 학습요구도에 있어 학생들의 집단비교는 '사고와 재난'(t=3.46) '운반법 및 관리'(t=3.41) '응급처치'(t=3.30) '공중보건'(t=2.33)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p<0.05) 계열간 유의한 차가 가장 작은 영역은 '기본간호'와 '인간과 성'이었다.

〈표 5〉 성별 학습 요구도

건 강 영 역	여 학 생			남 학 생			t	p
	평균	표준편차	순 위	평균	표준편차	순 위		
사고와 재난	3.64	0.65	12	3.49	0.73	12	2.57	0.01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4.13	0.57	4	4.03	0.70	3	181	0.07
붕대법	3.97	0.87	6	3.97	1.00	5	0.06	0.95
운반법 및 관리	3.66	0.78	11	3.71	0.87	9	0.72	0.47
정신위생	3.85	0.83	9	3.76	0.94	7	1.22	0.22
식품위생	4.43	0.68	1	4.01	0.88	4	6.38	0.00
전염병	4.05	0.67	5	3.83	0.77	6	3.79	0.00
성인병	4.15	0.65	3	4.06	0.88	2	1.41	0.16
환경 위생	3.97	0.73	7	3.73	0.88	8	3.56	0.00
인간과 성	4.28	0.64	2	4.21	0.77	1	1.32	0.19
기본 간호	3.88	0.69	8	3.57	0.89	11	4.77	0.00
공중 보건	3.83	0.80	10	3.67	0.91	10	2.22	0.03

〈표 6〉 계열별 학습 요구도

건 강 영 역	구 분						t	p
	인 문 계			실 업 계				
	평균	표준편차	순 위	평균	표준편차	순 위		
사고와 재난	3.66	0.66	12	3.47	0.71	12	3.46	0.00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4.17	0.61	3	3.99	0.66	5	3.30	0.00
붕대법	3.98	0.89	5	3.96	0.98	6	0.30	0.77
운반법 및 관리	3.80	0.76	9	3.57	0.87	11	3.41	0.00
정신위생	3.83	0.89	8	3.77	0.88	9	0.84	0.40
식품위생	4.20	0.76	2	4.24	0.86	2	0.59	0.55
전염병	3.88	0.70	6	4.00	0.74	4	1.97	0.05
성인병	4.05	0.80	4	4.16	0.74	3	1.81	0.07
환경 위생	3.87	0.80	7	3.84	0.83	7	0.42	0.67
인간과 성	4.24	0.73	1	4.25	0.68	1	0.25	0.80
기본 간호	3.73	0.85	10	3.73	0.77	10	0.08	0.93
공중 보건	3.67	0.89	11	3.84	0.82	8	2.33	0.02

V. 논 의

1.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 요구도

이는 학교에서의 건강교육이 질병보다는 건강에 초점을 두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잘 나타낸 결과라고 하겠다.

12영역중에서 특히 ‘인간과 성’ ‘성인병’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이 4.0이상의 아주 높은 학습요구도를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학습요구도가 가장 높은 ‘인간과 성’(4.25)은 도(1992)의 연구 ‘성과 건강’(3.39, 4점척도임)와 일치한다. 이 영역에 포함된 내용중에는 ‘성과 성윤리’(4.54) ‘남녀의 생리와 위생’(4.51) ‘임신과 분만’(4.32)의 순으로 높은 학습요구도를 나타냈는데, 황(1986)은 4점척도로 ‘분만’(2.84), ‘생식생리’(2.79), ‘임신’(2.79)으로, 그리고 김(1990)은 ‘고등학교 시절에 오는 육체적 변화’ ‘건전한 이성교제의 방법’ 등에 높은 학습요구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높은 학습요구도로 미루어 볼 때 개방된 현대사회에서 부정확한 성의 지식으로 올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리학적인 지식과 함께 바람직한 남녀의 교제를 중심으로 한 건강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신교련교육과정에서의 ‘인간과 성’단원의 선정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기대가 되지만 아직도 생물, 체육, 가정, 국민윤리 등의 교과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학습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건강교육을 위해 체계적 연구와 자료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간과 성’ 다음으로 학습요구도가 높은 ‘식품위생’(4.22)중에서도 ‘음식물과 관련된 질병’(4.37)이 높은 학습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는 황(1986)의 ‘영양과 질병’(3.01, 4점척도)에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바쁜 학교생활 등으로 불규칙한 식사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변비, 설사를 경험하고 있으며, 각종의 건강식품을 무절제하게 복용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마스크 등에서 접하게 되는 건강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건강식품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건강의 기본이 되는 식품위생 및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인병’(4.10)영역에서는 ‘예방대책’(4.54)이 높은 학습요구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섭취하는 음식물, 생활습관, 유해환경 등을 주의함으로써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한 결과라고 하겠다. 즉 환경 및 식생활변화에 따라 성인병 발생이 늘고 있는 현상을 흔히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학습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한가지 건강정보가 현재 또는 40년 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남, 1989) 가정이나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교육이야말로 다른 어느 학습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응급처치 및 종류와 방법’(4.08)영역에서는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4.57) ‘출혈’(4.49) ‘질식’(4.20) ‘응급처치의 원칙’(4.14) ‘화상 및 동상’(4.13) ‘의식불명’(4.10) ‘중독’(4.05) ‘충격’(4.01) 등에서 학습요구도가 아주 높았다. 55문항을 중심으로 할 때 가장 학습요구도가 높은 문항이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이었으며, 이는 겉으로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 돌연히 사망하는 경우를 접하면서 이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급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사고와 부상시 의료인의 처치를 받기 전에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함으로써 상처를 최소화하고 고통을 경감시켜 죽음에서 삶으로, 장기치료에서 단기치료로, 영구손상에서 일시적 장애로 전환될 수도 있는 매우 필요한 교육내용(대한 적십자사, 1986)인 점에서 높은 학습요구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전염병’(3.94)영역에서는 ‘예방’(4.50)이 학습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이 학교이므로 전염성 질병의 예방은 아주 중요하다.

‘환경위생’(3.85)영역에서는 ‘환경오염’(4.09)의 학습요구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신교련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되는 영역으로 학생들의 학습요구도의 순위는 비교적 낮았지만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위생’영역은 다른 연구자(김, 1990 : 황, 1986)의 보고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였으나, 본 연구에서의 학습요구도는 3.80으로 12영역중 8번째의 순위였다. 이는 건강영역 구분 도구가 표준화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차이로 풀이된다.

‘인격발달’(3.90)과 ‘적응’(3.84) 문항에 높은 학습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개인의 인격형성, 자아개념, 인간상호간의 관계 등에 따르는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을 학생들이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중보건’(3.75)영역에서는 ‘건강관리’(4.36) 문항의 학습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고등학교에서의 건강교육이 기초교육의 마지막 정리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간호’(3.73)영역에서는 ‘환자의 기본간호’(4.05)에 높은 학습요구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가정간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하겠다.

‘운반법 및 관리’(3.68)영역에서는 ‘맨손운반법’(4.01)이 높았는데, 이는 자동차 소유가 일반화됨에 따라 차량운반보다는 위급시에 맨손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환자운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고와 재난’(3.57)영역에서는 ‘교통’(4.09) ‘화재’(4.08)의 문항에서 학습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교통재해와 화재로 인한 희생이 무척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질병에 대한 사망률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사고에 의한 희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부주의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건강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학습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고와 재난’영역이 낮은 순위를 보인 것은 그 필요성의 인식보다는 신교육과정에 새로이 추가되는 단원이어서 학생들의 관심이 다소 낮았다고 생각된다.

각 영역의 기타란에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답한 학생은 39명으로 7%이었다. ‘응급처치’영역의 경우, 이론보다는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처치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20명이나 되었다.

이는 이론보다는 건강교육과정중에 건강과 관련된 기술(skill)을 습득시켜줄 수 있는 시범(demonstration)등이 포함된 별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연구(남, 1989)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기타란에는 이외에도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6명, AIDS 5명, 정신질환의 종류 4명, 기타 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요구도가 높은 건강영역을 중심으로 교련교육과정내의 건강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성장발달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질병과 불구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자기능력을 개발하여 건강증진을 지향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게 된다는 연구(이, 1988)가 기대되어 진다.

2. 학년별,성별,계열별 학습요구도

1) 학년별 학습요구도

학년별 학습요구도는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상대적으로 입시준비의 부담이 적어서, 3학년은 졸업후 바로 사회에 적응한다는 점에서 높은 학습요구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1학년은 ‘인간과 성’ ‘식품위생’ ‘붕대법’ ‘성인병’ 등의 순으로, 2학년은 ‘식품위생’ ‘인간과 성’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성인병’ 등의 순으로, 3학년은 ‘인간과 성’ ‘식품위생’ ‘성인병’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등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 학년에 맞는 학습계획과 내용선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역별 항목에 대한 학년별 집단비교는 ‘봉대법’ ($F=6.43$) ‘정신위생’($F=4.16$) ‘인간과 성’ ($F=3.37$)에서 학년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

‘봉대법’ 영역에서의 학년간 차이는 실기시험을 치르는 데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실기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간과 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이에 따른 교육내용선정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1989)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성적, 흡연, 가정형편을 지적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3학년 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학습요구도를 보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1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학습요구도를 보여준 것은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연구 김, 1988)와도 일치하고 있다.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난 영역은 ‘전염병’이고 ‘사고와 재난’ ‘환경위생’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작았다.

2) 성별 학습요구도

여학생의 평균학습요구도는 3.99, 남학생은 3.84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교적 더 높았다.

여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식품위생’이고 그 다음으로 ‘인간과 성’ ‘성인병’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전염병’ 등에서 학습요구도 4.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사고와 재난’이었다.

남학생의 학습요구도는 ‘인간과 성’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인병’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식품위생’ 등에서 아주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영역은 역시 ‘사고와 재난’이었다.

남학생에 있어 ‘인간과 성’ 영역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행 교육과정중 관련내용이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여교사와 양호교사에 의해 초경을 중

심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가정교과를 통해 주로 여학생에게만 실시되어 왔으나 이제는 모든 단계의 모든 학생들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교련교육과정에서 남녀 학생 공통으로 학습할 ‘인간과 성’에 대한 단원은 학생들의 높은 학습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내용이므로 그에 따른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별에 따른 영역별 학습요구도의 차는 ‘식품위생’($t=6.38$) ‘기본간호’($t=4.77$) ‘전염병’($t=3.79$) ‘환경위생’ ($t=3.56$) ‘사고와 재난’($t=2.57$) ‘공중보건’($t=2.22$)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p<0.05$)

‘식품위생’과 ‘기본간호’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은 두 영역이 가정과 교련 교과목에서 여학생 위주로 교육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학습요구도를 나타낸 유일한 영역은 ‘운반법 및 관리’이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운동량이 많고 과격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성별에 따른 학습요구도의 차이가 가장 작은 영역은 ‘봉대법’($t=0.95$)이었다.

3) 계열별 학습요구도

인문계 학생들의 평균학습요구도는 3.92이고 실업계 학생들은 3.90로 인문계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학습요구를 나타냈다.

인문계 학생들의 학습요구도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인간과 성’이고 다음으로는 ‘식품위생’ ‘응급처치의 원칙 및 종류와 방법’ ‘성인병’ 등에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사고와 재난’이었다.

실업계 학생들이 가장 높은 학습요구도를 보인 영역은 ‘인간과 성’이고, ‘식품위생’ ‘성인병’ ‘전염병’등은 학습요구도 4.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와 재난’이 가장 낮았다.

계열별 학습요구도에 있어서는 ‘사고와 재난’($t=3.46$) ‘운반법 및 관리’($t=3.41$) ‘응급처치’($t=3.30$) ‘공중보건’($t=2.33$)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p < 0.05$)

실업계 학생들이 '식품위생' '전염병' '성인병' '공중보건' 등의 영역에서 인문계학생들보다 높은 학습요구도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실업계 학생들이 졸업후 바로 사회에 적응하게 되었을 때 부딪치는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보건지식이 높을수록 건강관리 실천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기(1985)의 보고를 참고해볼 때 건강교육을 통한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이 기대되어 진다고 하겠다.

계열간 유의한 차가 가장 작은 영역은 '기본간호'와 '인간과 성'이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련 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학습요구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건강교육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인문계, 실업계, 남녀 고등학생 594명이었다. 연구도구는 현행의 교련 교육과정과 신교련 교육과정(6차)에 적용될 교련 교과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강관련 내용 12영역 55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3년 3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t-test, F-test, 등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2영역에 대한 학습요구도는 '인간과 성', '식품위생', '성인병' 등의 순으로 높았고, '사고와 재난', '운반법 및 관리', "기본 간호" 등은 낮았다.
- 55문항에 대한 학습요구도는 '인공 호흡 및 심폐소생', '성인병 예방대책', '성과 성윤리' 등의 순으로 높았고, '천재지변', '대량부상자관리', '간호의 개요' 등은 낮았다.
- 학년별 학습요구도는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높았다. 1학년은 '인간과 성'에서, 2학년은 '식품위생', 3학년은 '인간과 성'에서 높았다.

4. 성별 학습요구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식품위생', '인간과 성', '성인병' 순으로 높았다. 남학생은 '인간과 성', '성인병', '식품위생' 순으로 높았다.
5. 계열별 학습요구도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높았다. 계열간 유의한 차 없이 '인간과 성'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제 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 현행의 교련교과서는 교과목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에서 편찬하나 건강관련내용만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하여 고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특성 요구에 맞는 건강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둘째 : 학생들의 학습요구도가 높은 영역에 건강교육내용 선정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 셋째 :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학습요구도를 분석하여 학교 건강교육의 목적, 학습내용의 선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 넷째 : 학생들의 학습요구에 맞는 건강관련 단독 과목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방부(1985). 교련(여).
_____(1990). 교련(여)
_____(1988). 교사용 지도서(여)
_____(1990). 교사용 지도서(여)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김화중(1988). 학교보건전략, 초등 및 중등 양호 교사 직무연수 교재
_____(1984). 학교보건업무, 학교보건과 간호, 서울: 수문사.

김화중(1989). 보건교육원리, 보건교육의 이론과 실제, 수문사.

남정자, 정기혜(1988). 학교보건교육개선에 관한 연구(I),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남정자의 2인(1989). 학교보건교육개선에 관한 연구(II),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대한적십자사(1986). 응급처치교본. 동명인쇄사

문교부(1987).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_____ (1987). 교련 교육과정 해설.

서울시 교육위원회(1987). 보건관리지침.

양호교사 대토론회(1992).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대한간호협회 양호교사회.

<논문 및 정기간행물>

- 강경원(1991). “학교보건교육에 대한 학생과 일반교사의 태도와 실천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기경숙(1985). “중학교 남학생들의 건강관리 실천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모임의 2인(1976). “초·중·고등학교에 건강교육과정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간호, 제 15권 제 2호.
- 김상순(1977). “중등학교 교사들의 건강 지식 및 건강교육에 관한 태도” 중앙의학, 제 32권 제 6호.
- 김상욱(1988). “학교 보건교육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1권 제 2호.
- _____ (1989). “우리나라 학교보건사업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보건대학원.
- 김은주(1989).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정옥(1990). “고등학교 학생의 보건교육내용에 대한 흥미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화중(1988). “한국 보건교육체계와 국민학교 보건교육내용”, 한국 학교보건학회지, 제 1권 제 1호.
- _____ (1989). “학교보건의 지향하는 건강의 개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2권 제 2호.
- 구석복(1992). “고등학교 교련교육의 효과 증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도은영(1992). “고등학교 보건교육내용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박숙희(1986). “여고 교련교육과정 분석 및 여자교련교사의 직업 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방에스터(1989).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에서 양호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보건교육의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배원환(1989). “대구시내 체육교사를 통한 학교 보건교육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보건대학원.
- 서성제(1989). “학교보건교육, 학교보건의 이해와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 유재복(1989). “중학교 교과과정에 따른 보건교육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사회복지개발대학원.
- 이경자(1988). “초·중학생을 위한 보건교육의 영역 및 주요개념 선정에 관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재은(1984). “학교 보건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학 논집 36호.
- 오종서(1991). “중·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추미호(1992). “학교보건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 황의숙(1986).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단독과목 설정 및 내용 선정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 Balog, J. E. (1981). “The Concept of Health and the role of Health Education” The J. O. S. H. Sep. pp. 461-464.
- Edwards, L. H. (1987). “The School Nurse’s

Role in School-based Clinics” The J. O. S. H., Apr. PP 157-159.

Kalisch, B. J. (1983). “School Nursing in the News” The J. O. S. H., Nov, pp. 548-553.

Rash, J. K. (1979).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in Health Education, The Health Education Curriculum, John Wiley & Sons. pp. 27-38.

Rosner A. C. (1977). “Nurse can and should Teach Health in the classroom” The J. O. S. H., Feb, pp. 118-119.

- Abstract -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Degree of Learning Desire in the Health Education of Military Drill Curriculum

*Cho, Eun 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learning desire in the health education of military drill curriculum and to furnish basic data for the effective health education at high school. A total of 594 high school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s and the 12 domains & the 55 questions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5 to March 27, 1993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F-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12 domains, respondents indicated high degree of learning desire in 'human & sex', 'nutrition' and 'disease of adult' in that order. However 'accident & disaster', 'transport & management' and 'nursing' were not highly ranked.
2. In the 55 questions, respondents showed high degree of learning desire in 'artificial respiration'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recautionary of adult disease' and 'sex & sex moral' in that order, but low degree of learning desire in 'the management of many wounded persons' and the 'synopsis of nursing'.
3. Comparing the degree of learning desire by grade, the 1st, the 3rd and the 2nd grade were ranked in that order. The 1st and 3rd graders showed higher degree of learning desire in 'human & sex', and the 2nd graders in 'nutrition'.
4. Also,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degree of learning desire than male students in general. Female students indicated it in 'nutrition', 'human & sex' and 'adult disease' in that order while male students in 'human & sex', 'adult disease' and 'nutrition' in that order.
5.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showed higher degree of learning desire than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Human & sex' was highest ranked at both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Health Education of Military Drill Curriculum

*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